

아침세평

호남지역 통계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한 경 록

광주전남연구원 지역정보센터장



통계청에서는 통계 자료의 사회적 활용가치를 극대화 하고 지역통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통계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작년 6월에는 부산·경남지역의 부산센터, 11월에는 서울·경기지역의 서울센터와 대전·충청지역의 대전센터가 문을 열었다. 대전, 서울, 부산에 총 50석 규모의 데이터 분석 공간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각 센터는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몇몇 지자체와 기관에서는 센터를 이용함으로써 각종 통계 작성이나 데이터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통계빅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전, 서울, 부산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센터 설치 가능해진다. 이에 호남지역 데이터 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계빅데이터 광주센터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미 호남지방통계청에서는 2020년 광주센터 신설을 위해 구체적인 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지원, 서비스 지원, 교육지원을 통해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융복

합한 주민 대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강조되면서 지역통계의 허브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통계분야 빅데이터의 지속적인 확충과 대외 개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센터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계빅데이터센터에는 개인정보 침해 없이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연계와 융합을 지원하는 보안환경이 갖춰진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된다.

통계빅데이터센터에서 서비스하는 데이터로는 기업등록부, 종사자, 육아휴직자, 등록센터스 인구·가구·주택, 농업어업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행정통계자료(통계등록부)와 사업체조사, 인구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농가경제조사 등 통계기초자료(마이크로데이터)가 있다. 또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통신사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가구소득, 업종별 매출, 표준공시지가, 도로별 차량 통행량, SNS 데이터 등 민간자료도 제공한다. 센터는 통계조사 및 행정통계 자료에 대한 통합적인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석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며, 데이터 융복합 지역 특화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통계청의 통계자료, 마이크로데이터, 민간데이터 간 연계분석 서비스와 시간 및 거리상 센터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원하는 형태로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주문형 통계 서비스는 매우 유용할 것이다. 또한 통계자료 분석 경험이 없는 이용자를 위해서도 상담과 분석 자문 서비스가 제공된다.

통계빅데이터센터는 공공기관 및 통계작성기관 뿐만

아니라 사천승인을 받으면 일반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다. 학술연구, 정책개발, 창업 등 각 분야에 맞춤형 데이터 제공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지자체, 연구소, 지역대학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상호보 유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업이 필요하다.

통계빅데이터 광주센터가 설립되면 호남지역의 연구자 및 이용자들의 통계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미 운영 중인 타 지자체의 통계빅데이터센터 현황을 잘 벤치마킹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광주센터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설립 전부터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행사 등을 통해 이용자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의 수요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이용자 수준을 고려한 고객 맞춤형 기술지원 및 실험성 있는 교육 자원이 되어야 한다.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서 점점 활용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금융, 제조, 유통, 통신, 스포츠 등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관광, 교통, 복지, 환경,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통합해 분석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통계빅데이터 광주센터가 설치되면 지속적으로 지역에 특화된 데이터를 축적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해 본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수립은 광주전남 지역의 정책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고

세종대왕과 당뇨 이야기

장재용

보라内科병원장



기본이 우울하고 슬플 때 고기를 먹는다네 내 지인은 못말리는 육식가다.

우리 역사 속 성군 중에서도 고기를 좋아하는 위인이 있었으니,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불리는 세종대왕이다. 세종은 훌륭한 유교 정치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웠고, 후대에 모범이 되는 왕이었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 4년 후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당뇨병을 주범으로 꼽고 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세종대왕은 식성이 좋아 하루 4끼 식사를 했으며 주로 육식을 즐겨 수라상에 고기반찬이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다.

비단 체구라 당시 왕들이 즐기던 사냥과 같이 몸을 움직이는 놀이에는 흥미가 없었다고 한다. 또한 30대 중반부터 안질을 앓아온 세종은 눈이 점점 나빠져 시각장애를 앓게 된다.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대표적 당뇨병 합병

병중인 당뇨망막증을 앓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전 세계적으로 매 10초 마다 1명씩 사망하고, 매 10초 마다 2명씩 이 질환이 발생한다.

이 질환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 없으며, 유전적 요인과 비만, 운동부족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발생에 주로 영향을 준다. 이 질환, 바로 당뇨병이다.

WHO가 아시아 지역에 경고한 당뇨대란 추계에 따르면 국내 당뇨병 환자는 2030년에 전체인구의 14.4%인 722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흔한 병이라고 생각하여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질환 그 자체보다 질환과 함께 오는 합병증 때문이다.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에는 심혈관 질환, 신부전 질환, 눈 합병증, 발 합병증 등이 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2~4배 심혈관 질환을 지닐 확률이 높아지고, 뇌졸중 위험도 일반인의 2배 이상이다. 현장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필자 역시 당뇨합병증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가 늘어난 것을 몸으로 느낄 정도이다.

당뇨병이 생긴 후 15년에서 20년이면 거의 모든 환자에서 당뇨병성 망막증이 생긴다. 당뇨망막증의 정도는 당뇨병의 기간과 비례하여 오래 될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데 말초혈관의 순환장애가 생기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혈관장애가 계속되면 망막의 여러 부위에 산소결핍 부위가 많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우리 몸은 산소의 공급을 원활히 해 세포의 질식을 막으려고 산소결핍 부위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혈관이 자라게 된다. 신생혈관은 정상적인 혈관이 아니므로 자꾸 터지게 되고 신생혈관을 따라서 새로운 섬유성 물질이 자라고 이것이 또 혈관을 잡아 당겨서 출혈을 일으키게 되어 결국 시력이 저하되게 된다.

문제는 당뇨망막증 환자 10명 가운데 2명 정도는 실명 위험에 빠진다는 것이다.

당뇨망막증은 초기에는 아무런 자각증상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단순히 혈당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두 번은 눈 검사를 받아야 실명을 막을 수 있다.

당뇨병이 오래 진행됐고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는 사람은 당뇨망막증이 쉽게 생길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평균 수명이 높아진 요즘, 오래 사는 것 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화두가 되었다.

흔히 하는 말 중 ‘병을 키운다’는 말이 있다. 몸에 느껴지는 작은 이상이라도 관심을 갖고 살피며,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기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투고

블랙박스 주기적 점검 필수

블랙박스는 차량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됐다.

교통사고의 원인규명과 과실을 가리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며 보복운전 시 증거로 쓰이는 등 활용도가 아주 높고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녹화 영상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블랙박스를 설치만 해놓고 무관심하게 방치해 블랙박스 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오작동 등의 주원인은 블랙박스에 대한 운전자의 관리 소홀로, 무더운 날씨에 실외에 주차해 블랙박스 부분이 직사광선에 장시간 방치될 경우 오작동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또 대부분의 블랙박스가 상시녹화 기능을 사용하는데 녹화와 저장에 자꾸 반복되면서 메모리카드의 수명이 감소해 녹화를 하지 않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메모리카드는 2주 단위로 포맷을 해야 하며, 자동으로 오래된 영상을 삭제하는 제품을 구입하여 오작동을 막는 것이 좋다. 블랙박스가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블랙박스에 주기적으로 관심을 갖자.

나태환 광주지방경찰청 1기동대 경장

사설

상무·치평중 통폐합 논란 입장차 좁혀자

광주 상무중과 치평중을 통폐합 계획을 두고 지역 내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광주시교육청과 서구는 상무중과 치평중을 통폐합한 뒤 남는 공간에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 시설과 복합문화센터 등을 건립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 관련 단체들 간의 의견이 팽팽해 맞서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 사업이 교육감의 처적을 쌓기 위한 사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단체는 “시교육청이 학교 통폐합을 위한 명분으로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내세우지만 상무중·치평중은 교육부가 정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권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 교사노조는 두 학교의 통폐합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사노조는 “지난 1985년 개교한 상무중과 1991년 개교한 치평중이 나란히 붙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건립 당시에는 두 학교가 모두 필요했지만 현재는 인근에 많은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장거리 통학생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인근 주민들 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최근 상무중의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 곳곳에 통폐합 반대 현수막을 걸고 시교육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으며, 다른 인근 주민들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기대감으로 학교 통폐합에 찬성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시교육청은 이 문제를 공론화로 풀기로 하고,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한다.

공론화 과정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은 남득 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시교육청 등 찬성 측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통폐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학교 통폐합 후 문화센터 건립을 ‘교육감 처적용’이라며 반대하는 주민들은 과연 이 사업이 처적용인지, 과연 처적용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논란이 빚어지는 것은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발씩 양보해 서로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준다면 풀지 못한 일이 없을 것이다.

논란 도시철도 2호선 드디어 착공하는가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드디어 오는 8월 첫 삽을 뜬다고 한다. 착공 계획을 잡은지 무려 17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

애초 건설 시기는 2008~2019년으로 정상적으로 건설됐다면 올해가 준공 해이다. 하지만 그간 갖가지 논란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2010년 취임한 강운태 전 시장이 건설 방식 재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시는 2011년 11월 당초 계획을 바꿔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41.7km를 건설하기로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다가 2013년 12월에는 지상 고가에서 땅을 알게 파는 지하 저심도 방식으로 바꿨다.

하지만 2014년 7월 취임한 윤장현 전 시장이 다시 건설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길고 긴 논란의 시간을 거쳐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원안대로 건설하기로 해 논란이 종식되는 듯했으나 푸른 길 훼손 방지 대책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남과 2015년 3월 기본설계 용역이 중단됐고 이어 방식논란으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결국 민선 7기까지 논란은 이어졌고 이용설 시장은 공론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건설여부를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드디어 16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어찌나 논란이 길었던지 오는 8월 착공식을 갖는다는 것만으로도 감회가 새로울 정도다. 광주시는 41.9km의 순환선을 저심도 방식으로 3단계로 나눠 2018~2025년 짓는 계획을 확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등 사업에 속도를 냈다. 1단계는 광주시청~광주역간 17km, 2단계는 광주역~광주시청간 20km, 3단계는 백운광장~효천간 4.8km다.

시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후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이 이어 국토교통부와 사업계획 승인을 마무리하는 등 착공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착공이 결정된 만큼 지금부터는 안전 시공과 불가피한 도심 교통혼잡 최소화, 차질없는 국·시비 예산 조달을 이뤄내는 것이다.

특히 공사과정에서 재해가 없도록 안전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광주시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취재수첩

공장 스마트화 지금이 기회다

이산하

경제부 기자



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공장이 지역 기업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자동화가 아닌 제품 생산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동화 솔루션을 이용해 제품을 적시에 생산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갖춰 기업이 알아차리지 못한 원자재 부족과 앞으로 만들어질 제품의 수량 등을 체크해 주는 ‘똑똑함’을 갖췄다.

실제로 최근 취재를 위해 방문한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제1차 협력업체 ㈜나전은 10여년 전부터 대부분의 공정에 스마트화를 도입, 현재 3000t과 2500t 등을 포함한 총 11대의 사출기와 HR050, HR165 등 32대의 관절형 로봇 설비를 갖추며 생산성 15% 증가를 이뤘다. 또 불량률을 35% 낮추며 현대

와 기아차가 선정한 품질 5스타 달성 등 자동차 내외장재 선두업체로 자리매김했다.

여수에 위치한 ㈜쿠기아는 스마트공장 도입 덕에 일자리를 늘렸다.

많은 이들이 공정의 자동화로 인해 ‘인력 감소’를 생각할 테지만, 쿠기아는 스마트화되며 이를 관리할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제품 생산과 매출 증대로 직원 수를 늘렸다.

쿠기아는 오는 8월까지 해외 수출을 위한 SQF 인증을 마무리하고, 공장개편에 들어간다. 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가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을 이용하며 성공의 요인으로 꼽힌 기존의 스마트공장을 보다 고도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를 관리할 인력 확충과 생산량 증대에 따른 2교대 근무를 생각 중이다.

많은 중소기업이 공정의 스마트화를 생각 중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목표로 국정과제 및 역점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

대표이사 회장·발행인 전운준 편집인·논설주간 여균수 편집국장 김상훈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54 우편번호 61626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영지·관제국) 370-7234 경 지 부 370-7050 (사회·지역사회) 사 회 부 370-7030 지 역 사 회 부 370-7040 (교육·육·연·관·문·민·국) 교육체육부 370-7020 문 화 부 370-7010 민 집 부 370-7083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사 진 부 370-7060 논 설 실 370-7200 원 원 실 370-7000 기 회 실 370-7090 총 무 국 370-7092 광 고 국 370-7070 판 매 국 370-7080 서 울 지 사 ☎978-70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광남일보가 지방신문 최초로 온라인 실시간 뉴스 보도와 함께 보다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꾸리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합니다. '오피니언'면은 독자 여러분에게 문을 활짝 열어 놓은 세상의 여론 소통 공간입니다. 미답이나 불만사항, 개선사항 등을 보내주시면 지면제자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 기사 제보·기고 등 보내실 곳 전화(062)370-7040 팩스(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